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2차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사회계열-오전반>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p>◆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p> <p><input type="checkbox"/> 본 문제지는 표지 1면과 문제지 3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논술고사 시간은 총 90분입니다.</p> <p><input type="checkbox"/> 답안의 자수 제한은 없으나, 1개 문항 당 1장의 답안지 내에서만 작성해야 합니다. 즉, <1번 문항>은 답안지 1면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하며, <2번 문항>은 답안지 2면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연습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답안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만 작성하며 연필, 샤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답안을 수정할 때는 잘못된 부분에 두 줄을 긋고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수정테이프나 수정액도 사용가능하지만 수험생들 간에 빌려주는 행위는 불가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답안지에는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답안지 교체는 고사 시작 후 70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교체가 불가합니다.</p>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문항 1] 다음 <제시문 1>~<제시문 3>에 나타나는 두 가지 입장을 비교하고,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여 그 근거를 밝히시오.

<제시문 1>

20세기 초 등장한 '집단 지성' 개념은 원래 곤충학에서 나왔다. 각 개체는 지능이 없지만 전체 무리는 고도의 지능체계를 형성하는 개미 등의 군집을 설명하는 데 쓰였다. 이 말이 널리 사용된 것은 2000년대 초다. 사용자들이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어 콘텐츠를 혁신하는 '웹 2.0'이 집단 지성의 전형적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집단 지성은 굳이 조직이 없이도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권위를 벗어던지고 고도의 조직화된 활동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단독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전통적인 인식에 따르면, 복잡한 과업은 명확한 노동 분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 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분배한다.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을 때 가장 흡족해 한다. 그러나 디지털 공동생활체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상상력을 '무보수'로 다른 사람을 위해 생산물을 만드는 데 투입한다. 집단 지성의 영역에서는 혁신이 특별한 장소에서 일하는 특별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 저작자들의 누적된 작업에서 나온다.

<제시문 2>

소셜 미디어는 거대한 집단 지성과 휴먼파워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필자가 186명과 공저한 이 책은 소셜 미디어를 주제로 한 책이자, 소셜 미디어의 힘을 십분 활용해 쓴 책이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구글독이나 위키 등의 협업 도구로 글을 써 나갔고, 트위터를 이용해 사람들의 피드백을 요청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책에 어떻게 기여할지 감을 잡지 못했지만, 책의 뼈대와 내용들이 가시화될수록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조금씩 코멘트를 주기 시작했다. 책의 본문을 직접 수정하기도 했고, 아예 새로운 장을 만들기까지 했다. 책에는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은 자신의 공헌이 책에 반영된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얼마든지 가져가서 쓰라"고 도움을 주었다. 외국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불과 석 달 만에 책의 모든 본문이 완성되었다. 책은 처음에 의도했던 주제를 훨씬 뛰어넘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모든 존재의 거리가 짧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간(間)의 거리' 철학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186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했고, 추천사만 해도 유명인을 포함 100여명에 이르렀다. 무명의 제약은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유명하다. 나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저 사람들과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는 것이 관건이다. 나는 인세 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이 되는 트래픽을 얻었다. 트래픽은 현존하는 가장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제시문 3>

사람들은 대체로 CEO의 독단적 결정보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믿는 성향이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CEO들은 광고를 제작할 때 이른바 '광고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한다. 홍보, 영업, 마케팅, 제품개발자, 외부 자문교수, 임원, CEO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위원들이 각자가 의사결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분만큼 발언하고 영향을 미친다. 절차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과까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모든 의견이 반영된 결정은 모든 의견을 채택하는 것과 다름없다. 광고에서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광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오길비는 "사공이 많은 위원회를 상대로는 좋은 광고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적이란 미명 아래 기계적인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특히 창의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광고나 신제품 개발 때 더욱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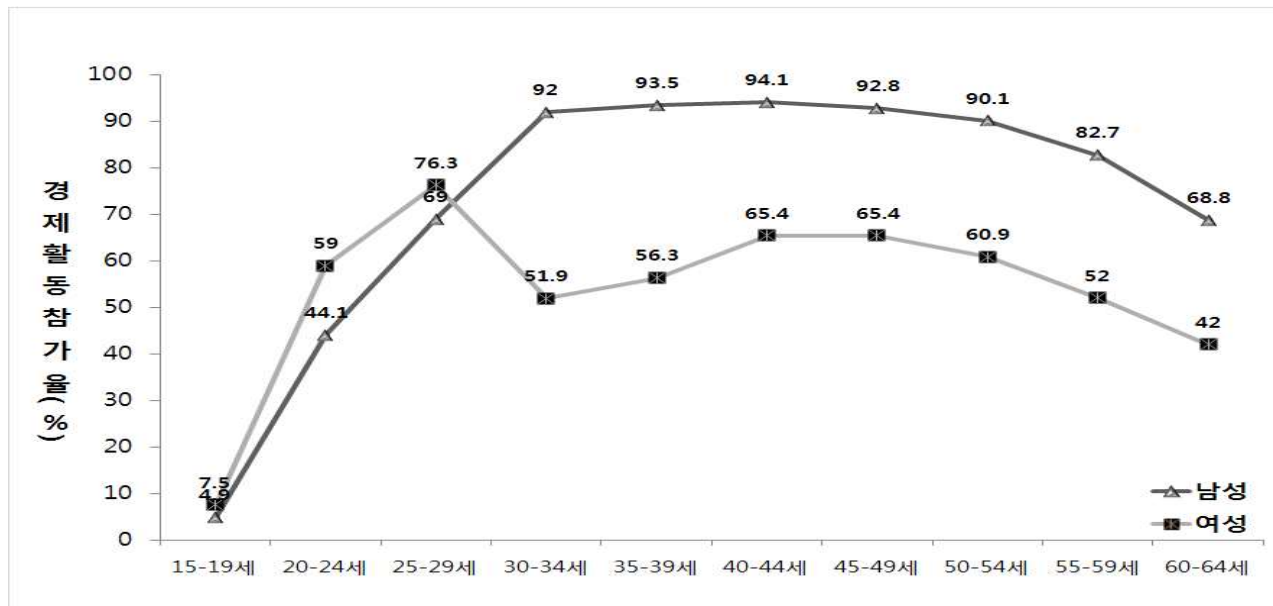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한 인터뷰에서 "애플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을 것 같나요? 하나도 없어요."라고 말했다. 다수의 평범한 의견보다 자신의 통찰력을 믿고 의사결정을 내렸기에 지금의 애플 신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성공한 광고들은 통찰력 있는 CEO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항 2]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여성 경제 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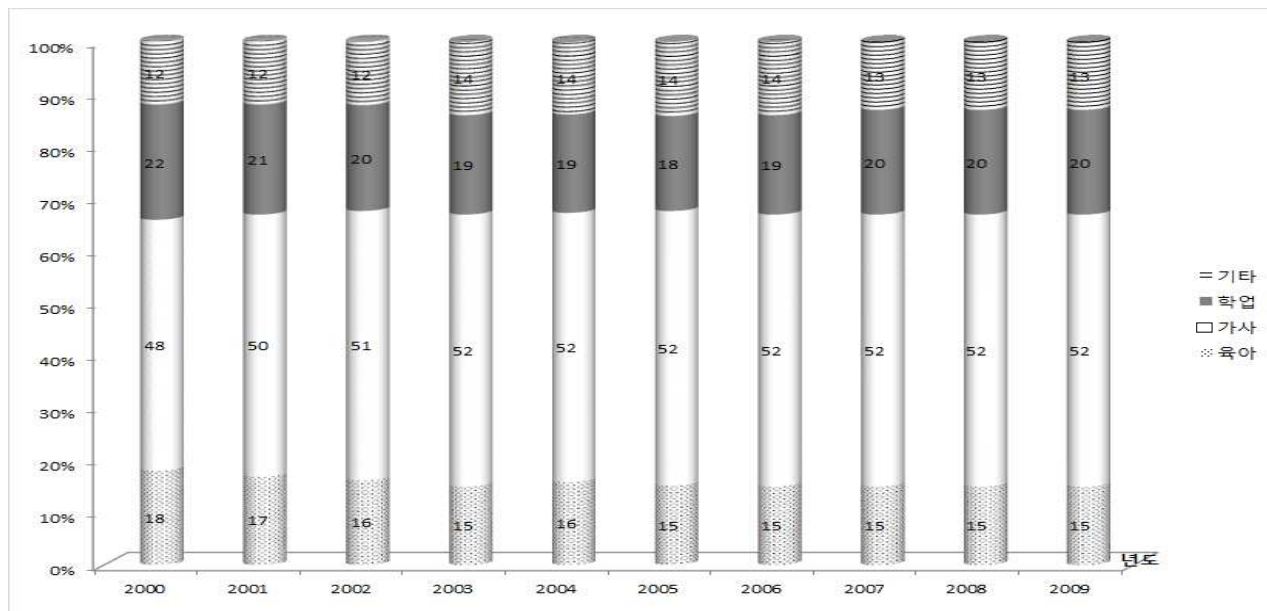
<표 1> OECD 주요 국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단위: %)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	OECD평균
53.9	77.3	76.5	74.4	70.1	69	62.9	61.3

<그림 1>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2009)



<그림 2> 여성의 비(非)경제활동 이유의 변화



<표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전체	16,617	11,119	5,498	33.1
남자	9,541	6,987	2,554	26.8
여자	7,075	4,132	2,943	41.6

<표 3> 주요 OECD 국가의 남녀 임금격차(2008년) (단위: %)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평균
12	20	12	21	12	25	31	39	21	20	16